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11

주폭(酒暴)에 대한 인식 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대해 관대하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술을 즐기는 사람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또는 사람을 좋아하는 호인(好人)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근 '만취 상태에서 하는 폭력 행위'인 음주 폭력, 즉 주폭(酒暴) 문제가 심각해 경찰은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의 주폭 심각성 인식,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606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7월 2~3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9%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우리 사회의 주폭(酒暴) 심각해' 86.0%
-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 94.0%

'우리 사회의 주폭(酒暴) 심각해' 86.0%

한국갤럽이 지난 7 월 2, 3 일 양일간 전국 만 19 세 이상 남녀 606 명에게 우리 사회의 음주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51.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4.4%로 주폭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모두 86.0%였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주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주폭의 심각성 인식은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 30 대의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저연령에서 주폭 심각성에 더 공감했다.

• **주폭 심각성 인식**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매우+어느 정도) 심각하다
전체		606	51.6	34.4	7.5	6.5	86.0
성별	남자	300	51.0	34.4	10.5	4.0	85.4
	여자	306	52.2	34.4	4.5	8.9	86.6
연령별	19~29세	112	47.6	44.0	5.6	2.8	91.6
	30대	125	52.4	38.1	5.0	4.4	90.6
	40대	134	51.9	30.9	11.3	5.9	82.8
	50대	114	49.8	36.0	8.9	5.3	85.8
	60세 이상	121	56.0	23.9	6.3	13.8	79.9

(질문)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음주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94.0%

지난 6 월 18 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을 사실상 없애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취 감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4.0%인 반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해 주취 감경을 없애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 **주취 감경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을 깎아줘야 한다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	모름/무응답
전체		606	3.6	94.0	2.4
성별	남자	300	6.4	92.3	1.3
	여자	306	0.9	95.7	3.4

연령별	19~29세	112	5.0	94.2	0.8
	30대	125	2.2	94.7	3.1
	40대	134	3.8	95.6	0.6
	50대	114	5.3	92.5	2.2
	60세 이상	121	2.0	92.7	5.3

(질문) 귀하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주폭이란 단어를 알고 있다' 49.7%

한편 '주폭'이란 단어를 음주 폭력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7%, '모른다' 50.3%로, 우리 국민 절반 정도는 주폭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폭 문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주폭 단어 인지도 제고와 함께 필요하다면 좀더 쉬운 표현을 찾아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 귀하께서는 '주폭'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